

SK그룹, 인도네시아에 지진 구호성금 전달

SK그룹은 대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구호성금 20만달러와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한다고 6월15일 발표했다.

SK그룹은 이를 위해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성금을 맡겼고, 의약품은 SK케미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행복추구경영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6>